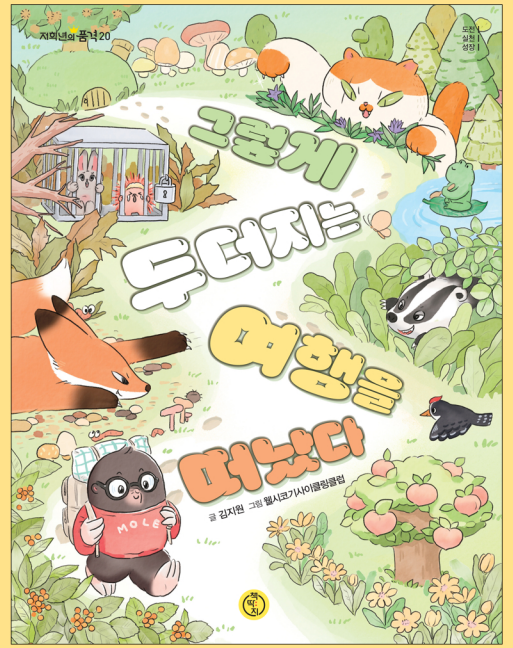


그렇게 두더지는 여행을 떠났다

☞ <한 줄로 정리하기!>

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아래의 칸을 채워 보세요.



김지원 글 | 웰시코기사이클링클럽 그림
책막지 펴냄

주요 사건

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

등장인물

누가 나오나요?

느낀 점

무엇을 느꼈나요?

상상, 짐작

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

그렇게 두더지는
여행을 떠났다



🌸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두더지와 산들의 성격을 적어 보세요.

두더지

.....

산들이

.....

🌸 두더지가 고난을 무릅쓰고 울퉁불퉁 언덕에 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.....
.....

🌸 다음의 동물들은 울퉁불퉁 언덕에 오르려는 두더지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, 책 내용을 떠올리며 정리해 보세요.

청설모와 다람쥐

.....

딱따구리

.....

🌸 아래는 여행에서 두더지가 겪은 일을 적은 것입니다. 이야기의 내용을 떠올리며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.

여우 굴에서 무사히 탈출했다.

.....

빠르게 뛰어가던 토끼와 부딪혔다.

.....

오소리와 마주쳤다.

.....

고슴도치가 두더지에게 먹으면 안 되는 꽃을 알려 주었다.

.....

산들에게 복숭아를 먹게 해 주었다.

.....

개구리의 나뭇잎 배를 타고 냇물을 건넜다.

.....

울퉁불퉁 언덕에 올라 복숭아를 맛보았다.

.....

독수리를 구해 주었다.

.....

두더지는 산들이를 알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다.

.....



🍀 8쪽에 나오는 ‘우물 안 개구리’라는 말은 ‘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’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. 이 이야기 속에는 속담이 하나 더 나와요. 그 속담을 찾아서 적어 보고, 어떤 뜻의 속담인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.

속담

뜻

🍀 두더지는 여우에게 붙잡혀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지만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. 친구들의 목숨도 구해 주었고요. 만약 여러분이 두더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? 두더지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고, 자신만의 탈출 방법을 소개해 보세요.

.....
.....

🍀 이야기에 나오는 두더지와 산들의 대화를 발췌한 것입니다. 84~85쪽을 다시 읽어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.



“거봐, 여행하다 보면 _____ 이 생긴다니까. 사실 부끄러워서 말 못 했는데, 나도 그 울퉁불퉁 언덕에 가려고 냇물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. 그런데 넌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_____ 를 따 오다니. 네가 정말 _____ .”

“네 덕분에 _____ 을 하고 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. 이제 나도 조금은 _____ 이 생긴 것 같아.”



“그럼 우리 다음엔 같이 여행 갈래? 너랑 함께 간다면 _____ .”

🍀 만약 혼자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, 그곳에 가고 싶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.

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

그곳에 가고 싶은 이유



실력이 쑥쑥 낱말퀴즈



다음은 <그렇게 두더지는 여행을 떠났다>에 나오는 낱말입니다.

다음 낱말에 알맞은 뜻풀이를 선으로 이어 보세요.

별안간 68쪽

소리나 말의 단 한 마디.

- 예 소리와 함께 난데없이 들쥐가 식탁 위로 쿵 떨어졌다.

묵묵히 70쪽

흔히 또는 으레 그러는 일.

- 예 힘껏 힘을 내어 나아가다가도 물살에 휩쓸려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기 였다.

연신 48쪽

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.

- 예 눈물이 핑 돌았다.

외마디 7쪽

잇따라 자꾸.

- 예 고슴도치는 즐린지 하품을 하며 어디론가 사라졌다.

방랑자 44쪽

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.

- 예 그 녀석은 한곳에 머무르길 싫어하는 거든.

일쭉 67쪽

말없이 잠잠하게.

- 예 그저 널 응원하고 있었지.

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을 [보기]에서 찾아 써넣으세요.

[보기]

에워싸도

대지

기진맥진

모욕

안간힘

가까스로

16쪽

46쪽

76쪽

8쪽

56쪽

67쪽

[1] 두더지는 여우의 마음을 돌리려고 을 썼다.

[2]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집에만 있는 건 세상에 대한 이야.

[3] 독수리는 땀을 흘리며 하고 있었다.

[4] 두더지는 울퉁불퉁 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다.

[5] 바오바브나무는 나무줄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들쥐 몇천 마리가 모자랄 정도라니까.

[6] 노을이 지나간 자리엔 금세 어둠이 깔리고, 달과 별이 를 포근히 감쌌다.